



단언컨대, 당신은 가장 완벽한 예능 PD '꽃보다 PD' 나영석

'꽃보다 할배' 바람이 쉬 가실 줄 모른다. 젊은 스타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예능에 '할배'들을 주인공으로, 그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배낭여행'을 조합해 이 같은 바람을 몰고 온 이는 다름 아닌 나영석 PD다. 이름 석 자만으로도 믿고 보는 성공의 아이콘이 된 '나영석 표' 예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글 이은정 기자 사진 tvN, CJ E&M

'나영석'이라는 이름 석 자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건 KBS '1박2일'을 통해서다. 시즌1 멤버인 강호동, 이수근 등과 함께 복불복 게임을 펼치며 종종 TV에 등장해, PD는 TV 밖 존재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뜻밖의 재미를 안겼던 것. 이 같은 신선한(?) 행보로 그는 한 명의 평범한 PD에서 전국민이 다 아는 스타 PD로 떠올랐다.

'1박2일' 통해 스타 PD로 부상

나영석 PD는 지난 2001년 KBS 공채 27기로 방송 일을 시작했다. '출발 드림팀', '산장미팅 장미의 전쟁' 등에서 조연출을 맡았고 '스타골든벨', '해피선데이-여결식스', '해피선데이-1박2일' 등을 연출하며 PD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나갔다. 입사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그는 2009년 한국PD대상 TV예능부문 작품상, 2011년 한국방송대상 TV예능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산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꽃보다 할배



지난해 말, 나영석 PD는 몸담았던 KBS를 떠나 올해 초 CJ E&M에 새롭게 등지를 틀며 또 한 번 이목을 끌었다. 12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만 했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그는 나이 마흔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일은 머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명령하는 것이고, 성공을 좇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림을 좇아서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선택이었다.

‘꽃보다 할배’로 ‘역시 나영석’임을 입증하다

나영석 PD는 지난 7월, tvN 금요 예능인 ‘꽃보다 할배’로 돌아왔다.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이라는 쟁쟁한 배우들과 멀티 플레이어 짐꾼 이서진이 펼치는 좌충우돌 배낭여행은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으며 유럽 편에 이어 대만 편까지 인기몰이를 했다. ‘직진’ 이순재, ‘구야형’ 신구, ‘로맨틱’ 박근형, ‘투덜’ 백일섭 등 할배 개개인에 선명한 캐릭터를 부여해 웃음을 선사하고,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할배들의 이야기로 깊이 있는 감동을 전했다.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비범한 재미를 만들어내는 힘은 결국 뛰어난 기획력과 탁월한 편집 능력에 있는 것. 이처럼 나영석 PD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정착시키고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프로세스에 능한 연출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냈다.

다시 태어나도 예능 PD로

나영석 PD는 스스로 그리 달변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과묵한 성격도 아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 했더니깐요” 등 PD로서는 흔치 않게 유행어를 남길 정도로 유머러스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줄도 안다. 이런 그의 예능관은 명확하다. 단지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싶다는 것, 재미 외에 또 다른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박2일을 통해 나란 사람이 부각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가 만들었다고 오해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작가가 있고 PD가 있다. 나는 이들의 의견을 조합한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예능 PD는 과학자처럼 발명품을 만드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니아라고 오버해서도 안 된다. 다만 넓고 얇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난 저널리스트(journalist)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영석 PD는 재미있는 걸을 좋아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다시 태어나도 예능 PD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가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시청자들은 이미 PD 나영석이 만들어낼 건강하고 유쾌한 웃음을 즐길 준비가 돼 있다. ☺